



호랑이 이야기

◆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찾아봅시다.



내가 아는 호랑이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호랑이 꼬리 낚시

추운 겨울날에 속이 출출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산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그만 토끼 한 마리를 만났어. 토끼는 뭔가 뽀스락뽀스락 먹고 있었지.

“어흥! 토끼야. 뭘 그리 맛있게 먹는 게냐? 냉큼 내놓지 않으면 널 잡아먹을 테다.”

꽤바른 토끼가 생각해 보니 까딱하다간 날름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거든. 토끼는 입맛을 쩍쩍 다시는 척하며 얼른 둘러댔어.

“아이고, 호랑이님. 실은 제가 물고기를 잡아먹었습지요. 방금 다 먹어 버렸으니 저랑 같이 가서서 더 많이 잡아먹는 게 어떨는지요? 강에 토실토실한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요.”

호랑이는 물고기가 많단 말에 솔깃해져서 물었어.

“강이 온통 퐁퐁 얼었는데 대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먹는단 말이나?”

“호랑이님도 참. 꼬리 낚시를 모르신단 말입니까요? 단단한 얼음에 구멍을 뚫 내서는 거기에 꼬리를 들이대고 물속에 푹 담가 놓는 거지요. 뭔가가 꼬리를 끄덕끄덕 물고 당기면서 묵직해지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당기면 됩니다요.”

토끼는 한마디 덧붙였어.

“다만 너무 일찍 당기면 물고기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한참을 계셔야 합니다. 호랑이님은 꼬리가 기니까 물고기가 여러 마리 대롱대롱 잡혀 올라올 겁니다.”

호랑이는 좋아서 입을 헤벌쭉하며 토끼를 따라 툼툼 강으로 갔어. 호랑이는 그 토끼가 시키는 대로 얼음 구멍을 내고는 꼬리를 푹 담갔지.

“아이고, 차가워라.”

호랑이가 엉덩이를 들썩일 때마다 토끼는 호랑이를 살살 달래며 못 일어나게 주저앉혔어.

“호랑이님, 좀 더 참으면 맛있는 물고기를 실컷 드실 겁니다. 제발 참으세요.”

호랑이는 차가운 걸 꼭 참고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호랑이는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잠들고 말았지. 피딱 깨서 둘러보니 토끼는 간데없고, 엉덩이가 목직해진 것 같았어.

“야, 이제 물고기가 잔뜩 달렸나 보다. 오홍홍.”

호랑이는 좋아하며 엉덩이를 들어 올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물 속에 담가 놓은 호랑이 꼬리는 꼼짝달짝 못하게 퐁퐁 얼어붙어 버렸지 뭐야.

“아빨싸, 토끼에게 속았구나.”

호랑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 벌떡 일어섰어. 그 바람에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 버리고 말았어.

혹시 꼬리 없는 호랑이를 보면 얼음 구멍에 앉아 꼬리 낚시를 한 그 호랑이인 줄 알렴.



1 「호랑이 꼬리 낚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토끼가 호랑이에게 같이 물고기를 잡아먹자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 2 토끼는 꼬리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나요?

- 3 호랑이 꼬리가 쑥 빠져 버렸을 때, 호랑이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2 「호랑이 꼬리 낚시」에 나온 호랑이와 토끼의 성격은 어떨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 봅시다.

	성격	그렇게 생각한 까닭
호랑이		
토끼		

3 이야기를 읽고 보들의 성격에 맞는 제목을 생각해 지어 봅시다.

까마득한 옛날, 하느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 한 마리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몸집에 털이 하얗고 보들보들하였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 동물에게 ‘보들’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모두 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몹시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보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오직 나만 사랑하셔. 그래서 나만 아름답게 만드신 거야. 다른 동물들은 아무렇게나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니, 다른 동물들이 모두 하찮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돼지가 다가와 보들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보들아, 안녕? 오늘따라 더욱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그러나 보들은 돼지를 보면서 텅명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름답지. 그런데 네 코는 정말 우습구나.”

“내 코가 어때서?”

“네 코는 꼭 썰어 놓은 오이를 닮았어. 게다가 귀는 깃털처럼 넓적하고, 꼬리는 호박덩굴처럼 꼬불꼬불하잖아?”

보들은 깔깔 웃으며 돼지를 놀렸습니다. 놀림을 받은 돼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가 보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보들아,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보들은 다람쥐를 깔보며 말하였습니다.

“너는 정말 작구나. 너는 버섯처럼 작으니까 버섯과 사귀렴.”

“하지만 나는 나무를 잘 타. 너에게 도토리를 따다 줄 수도 있어.”

“창피하게 너 같은 꼬마와 어떻게 어울려 다니니?”

다람쥐도 화가 나서 집으로 갔습니다.

사슴을 만난 보들은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 뿔은 꼭 나뭇가지처럼 우스꽝스럽게 생겼어. 아마 하느님께서 나무를 만드시다 깜빡 잠이 드셨나 봐.”

“하지만 나는 빨리 달릴 수 있어.”

“나무처럼 생긴 동물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아.”

사슴은 얼굴을 붉히며 돌아갔습니다.



배움 다지기

-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찾아보았나요?
- 인물의 성격에 맞게 이야기의 제목을 지어보았나요?

